



카스티야 이 레온 스페인 중세 문화와 영웅들의 이야기 따라 걷다

스페인 북서부의 카스티야 이 레온(Castilla y Leon)은 중세 스페인의 중심지이다. 아빌라, 부르고스, 팔렌시아, 살라망카, 세고비아, 솔리아, 바야돌리드, 사모라 등 9개의 자치주로 구성됐다. 과거 레온 왕국과 카스티야 라 비에하(Castilla la Vieja·옛 카스티야라는 뜻) 왕국의 영토가 합쳐져 탄생한 곳이다. 카스티야 이 레온 지방은 스페인 전체 면적의 5분의 1에 가까운 9만4천193㎢에 이른다. 유서 깊은 고장이어서 유적들과 이에 깃든 이야기들이 풍부해 가는 곳마다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매력을 발산한다.

글·사진 전수영 기자



1 산타 마리아 대성당 앞 광장, 2 산타 마리아 대성당 앞에서 웨딩사진을 찍는 커플, 3 부르고스 시내 거리, 4 산타 마리아 대성당의 남쪽 사르멘탈 문, 5 마우리시오 주교의 청동묘, 6 산타 마리아 대성당의 황금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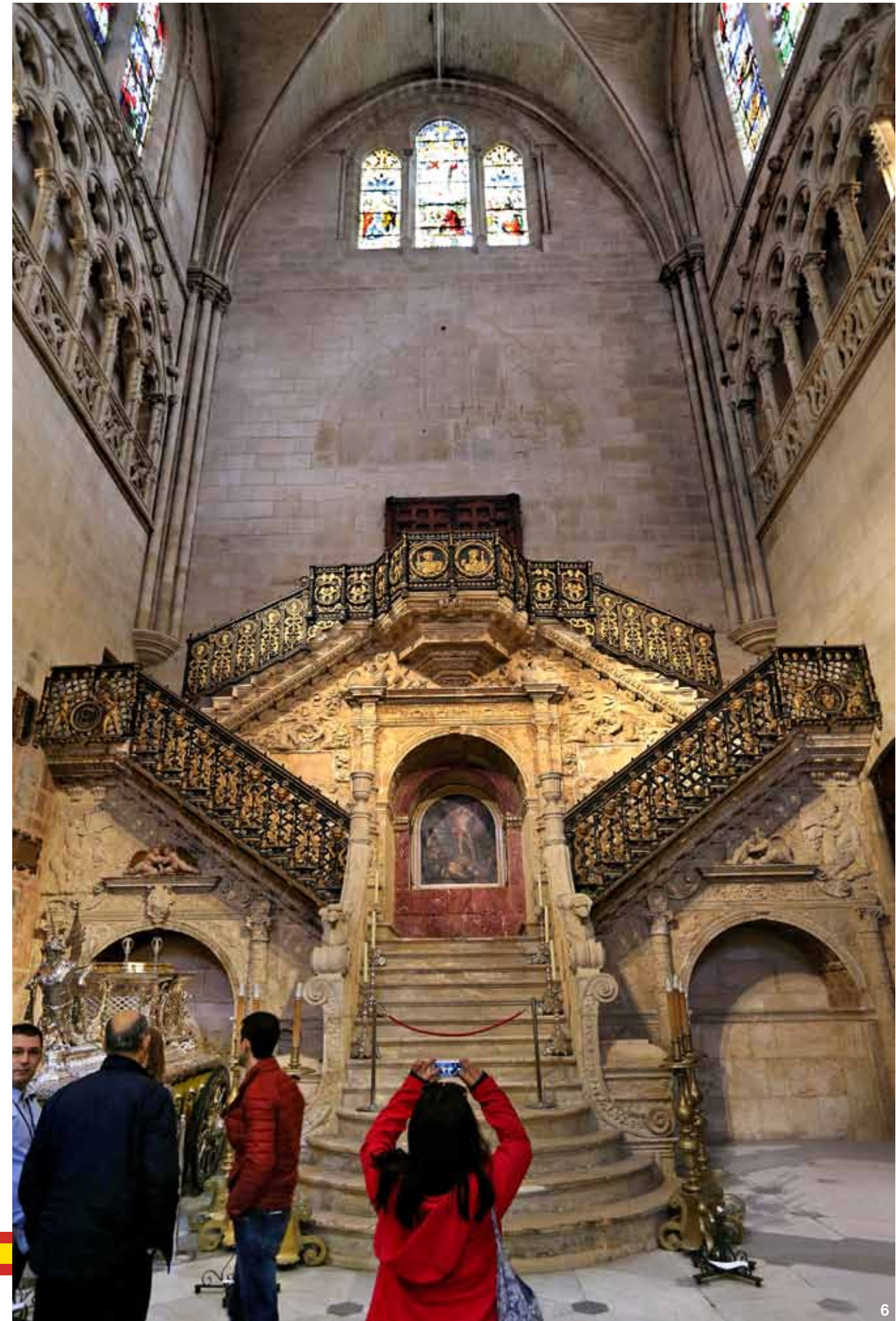


영웅을 사랑한 도시 부르고스

카스티야 이 레온 지방 내 부르고스주의 주도 부르고스(Burgos)는 수도 마드리드와 프랑스 접경의 중간쯤에 있어 빌바오, 산탄데르, 로그로뇨, 바야돌리드와 같은 도시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이 덕분에 15~16세기 독일, 프랑스, 벨기에 출신의 건축가, 조각가, 장인들이 대거 유입되며 중세 건축과 문화의 꽃을 피웠다.

1221년에 공사를 시작해 1765년에 완성된 부르고스의 산타 마리아(Santa Maria) 대성당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14세기에 건축된 성 모양의 입구가 자리하고 있다. 마침 어릿광대들의 가장행렬이 방문자들을 반갑게 맞아 준다. 산타 마리아 대성당은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딕 양식의 걸작 건축물이다. 페르디난드 3세(Ferdinand III) 통치 기간에 마우리시오(Mauricio) 주교의 주도로 건축이 시작됐다.

성당에는 문이 3개 있다. 남쪽의 사르멘탈 문과 북쪽의 코로네리아 문, 그리고 1516년에 지어진 라 페예헤리아 문. 성당 내부는 중앙 예배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크기의 '카피아'(Capilla)로 불리는 소예배당과 성구 보관실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소예배당은 중세에 개인 가문의 기도실과 무덤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천국에 가고 싶은 인간이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묻히길 바라는 욕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묻혀 천국에 가려고 한 인간의 욕망이 깃든 예배실, 성화, 제단 장식 벽 등 예술작품과 소장품이 뛰어난 건축 구조와 함께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한다.

망의 소산이다. 특이한 것은 무덤 위 석상이 모두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쪽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한 것이다. 권력과 재력에 따라 소예배당의 크기와 제단 장식 벽 등이 다르다. 성당에서는 뛰어난 건축 구조에 묘지, 성화(聖畵), 제단 장식 벽 등 예술 작품과 소장품이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성당 서쪽 천장에 걸린 시계 위의 종을 치는 인형이다. ‘파파모스카스’(Papamoscas·딱새)란 이름의 이 인형은 시간에 맞춰 종을 울리며 입을 열고 닫는다. 종종 파리를 삼키기도 해 사람들은 ‘플라이 이터’(Fly Eater)라고 불렀다.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수학한 천재 건축가 디에고 데 실로에(Diego de Silo)의 작품인 ‘황금계단’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현재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스페인을 침략한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이 계단을 마지막으로 내려왔다고 전한다. 계단 위 문은 성당 북쪽의 언덕길과 이어진다.

중앙예배당 마우리시오 주교의 청동묘 밑에는 스페인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는 엘 시드의 무덤이 있다. 그는 카스티야의 귀족이자 장군이었으며 발렌시아를 정복한 통치자였다. 스페인이 기독교인과 무어인의 나라로 양분된 11세기, 그는 기독교 전사와 이슬람 왕조의 용병을 오가며 명성을 쌓은 뒤 발렌시아를 정복해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다. 1099년 북아프리카의 무라비트 왕조(이슬람)의 침략에 맞선 전투에서 화살을 맞아 전사한 엘 시드는 그의 아내 히메나에 의해 부르고스에 묻혔다. 엘 시드의 전설은 영화로도 제작됐다. 찰턴 헤스턴과 소피아 로렌이 주연한 안소니 만 감독의 영화 ‘엘 시드’(El Cid: 1961년 제작)가 그것이다. 스페인 북서부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로 향하는 약 800km 순례길 여정 속에는 부르고스의 길도 포함된다. 산타 마리아 대성당 북쪽 언덕길에서 조개껍데기와 황금 화살표가 그려진 이정표 방향의 순례길을 따라 걷는 한국 대학생과 마주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2~3명 소그룹으로 산티아고를 향해 걷는 수많은 한국 학생을 바라보며 현지 가이드 살리아 로페스 무리요는 이유를 물으며 의아해한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는 것일까? 단순히 자신을 찾는 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먼 고행길이다.

1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지오반 피에트로의 공동작품인 ‘산타 마리아 막달레나’. 2 종 치는 인형 ‘파파모스카스’. 3 성 안나 예배실. 4 엘 시드의 무덤. 5 시내 대로에 세워진 엘 시드 동상. 6 엘 시드 초상화. 7 순례길 이정표. 8 황금화살표를 따라 걷는 한국 대학생들.



아빌라 구시가를 둘러싼 1천700m의 성벽 길은 방문객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한다. 장엄한 성벽 아래 미로 같은 중세 도시가 끊임없이 펼쳐진다.



1 아빌라 성벽. 2 스페인 첫 민주정부 총리 아돌프 수아레즈 동상. 3, 4, 5 다양한 풍경을 즐길수 있는 성벽길. 6 아빌라의 연인.



견고 싶은 도시 아빌라

부르고스에서 남쪽으로 약 260km, 자동차로 2시간 30분 거리의 드넓은 평원 속 언덕에 중세 도시 아빌라(Avila)가 우뚝 서 있다. 마드리드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다. 아빌라의 구시가지는 중세에 지어진 단단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12세기 무어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어진 성벽이다. 둘레 2천516m, 높이 12m에 9개의 성문, 88개의 감시탑과 2천 개가 넘는 흉벽이 걸어서 1시간 거리인 성벽 길을 따라 늘어선다. 안쪽에는 성벽만큼이나 오래된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985년 유네스코는 아빌라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총 길이 1천700m의 탐방로가 마련된 성벽 길은 성문인 알카사르(Alcázar)와 푸엔테(Puente), 16세기에 지어져 와인저장고와 정육점으로 사용된 건물인 카르니세리아의 집(Casa de las Carnicerías)을 통해 오를 수 있다.

현재 관광안내소로 사용되는 카르니세리아의 집에서 간략한 설명을 들은 뒤 성벽 길 탐방에 나섰다. 성벽에 오르자 폭 2m 돌담 길이 흉벽과 안전펜스를 따라 이어진다. 성벽 안쪽으로 스페인 특유의 붉은 기와가 빼곡히 늘어진 건물의 지붕을 뒤덮고 있다. 이국의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한다. 성벽 바로 아래에선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엿볼 수 있는 도심이 멀리 보이는 야트막한 능선과 잘 어우러져 고즈넉함을 느끼게 한다. 탐방로를 걷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만나게 되는 반원형 감시탑은 탁 트인 성 밖 전망을 선사한다. 나란히 솟은 둥그런 외벽과 녹지가 어우러져 중세 시대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거의 1천 년 동안 이민족의 침입을 막고 교역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성벽 안팎에는 성당과 수도원, 궁전이 세워지고 가옥이 들어서며 큰 도시로 발전했다. 동쪽 성문인 알카사르를 지나면 스페인 최초의 고딕 양식 대성당을 먼저 마주치게 된다. 12세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당은 처음부터 요새의 기능을 위해 건축이 됐는데 건물 뒤쪽이 성벽과 붙어 있다. 주변으로는 궁전과 같은 당시 중요했던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성당 광장을 지나 좁고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가



면 메르카도 차코 광장(Plaza del Mercado Chico)과 만난다. 마침 광장 남쪽 산 후안 성당에서는 ‘소를 보호하는 성녀’(Cow's Virgin) 행렬이 막 성당을 출발하고 있었다. 아빌라 시민의 약 20%가 소를 기르고 있어 예배를 마친 가족 단위의 행렬이 성녀상 뒤로 줄을 이었다. 이들은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소를 보호하는 성녀의 날’로 정해 기념한다. 발걸음을 옮겨 북측 성벽의 중앙출입구로 가면 성벽 위에 우아한 첨탑이 솟아 있는 카르멘(Carmen) 문이 나타난다. 17세기에 성문 옆에 있던 수도원에서 건물이 남아 첨탑을 올리기가 어렵자 수도원장이 왕에게 간청해 성벽 위에 첨탑을 만들었다. 문 안쪽으로는 현재 호텔로 이용되는 16세기 건축물인 피에드라 알바스(Piedras Albas) 궁전이 있다. 성벽과 붙어 있는 이곳의 식당과 정원에서는 성벽을 보다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아빌라에는 중세 가톨릭의 혁신을 주도한 테레사 성녀(Teresa de Cepeda y Ahumada)의 유적이 있다. 그가 태어난 구시가의 남쪽 성벽 인근에는 1636년 건축된 테레사 성녀 수도원이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벽이 기도하는 성녀의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된 예배당이다. 예배당 정면 제단을 바라보고 왼쪽에 있는 방이 성녀가 태어난 곳이다. 금장식과 성화(聖畵)로 치장된 작고 화려한 방에서는 16~17세기에 활동한 스페인의 유명 조각가 그레고리오 페르난데스가 만든 성녀 조각상을 볼 수 있다. 예배당 입구 오른쪽의 작은 박물관에는 반지를 낀 테레사 성녀의 손가락 유해가 있다.

7 ‘소를 보호하는 성녀’ 행렬. 8 테레사 성녀 조각상. 9 반지를 낀 테레사 성녀의 손가락 유해.



1 코소 광장. 2 중세풍의 다양한 집 외관. 3 목동과 양떼.
4 '천사의 강림' 포스터.

축제의 마을 페냐피엘

부르고스에서 남쪽 아빌라로 넘어가기 전, 중간 지점에 있는 페냐피엘(Peñaafiel) 마을에 들렀다. 투우 축제로 유명한 코소 광장(Plaza del Coso)이 있는 곳이다.

이곳 중세 광장은 투우 축제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도 투우 경기와 함께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직사각형 모양의 광장은 2~3층 높이의 집 48개가 둘러싸고 있다. 점토와 석재, 목재로 지어진 중세풍 집들은 고풍스러움을 자랑한다. 각 가정의 난간은 축제 기간에 관람석으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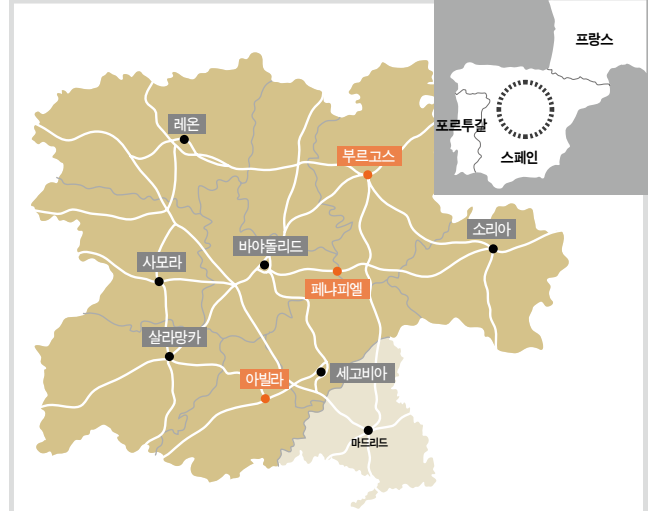
투우 외에도 다양한 축제의 장이기도 한 이곳 광장에서는 부활절 주간에 '천사의 강림'(La Bajada del Ángel) 전통행사가 열린다. 천사로 분장한 4세기상의 남자아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성모 마리아 상을 덮은 검은 천을 벗기는 이벤트다. 광장 한편의 페냐피엘 관광사무실에서 만난 직원 하비에 가르시아 데 디오스는 네 살 때인 지난 2000년 축제에서 천사 역할을 했다. 무섭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두려움보다는 검은 천을 잘 들어 올려야 한다는 긴장감이 더 했다"고 말하고 자신은 '천사'였으며 웃음을 지어 보인다.

이곳 관광사무실에서는 '천사의 강림'과 8월 14일부터 18일까

지 열리는 '성모 마리아(Nuestra Señora)와 산 로케(San Roque) 축제'를 비디오풀로 감상할 수 있다.

코소 광장 위로는 현재 와인 박물관이 들어선 페냐피엘성이 보인다. 언뜻 보면 배 모양을 하고 있다. 스페인은 기원전 천 년쯤부터 농사를 지었을 정도로 포도 재배의 역사가 오래됐고 재배 면적도 유럽에서 가장 넓은 나라다. 19세기 후반 진딧물의 일종인 필록세라로 유럽의 포도밭이 황폐해졌을 때 프랑스 포도 재배업자들이 스페인 북동부 사라고사주의 리오하로 이주하며 프랑스의 발달된 와인 양조 기술이 전해졌다. 리오하를 중심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정부는 와인 등급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스페인 와인은 세계 어느 나라의 와인보다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과 품질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❶

INFORMATION



기본 정보

인천국제공항에서 마드리드까지 대한항공이 직항편을 주 3회(화·목·토) 운항하고 있다. 오후 12시 45분 출발해 마드리드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6시 55분에 도착(시차 7시간 포함)하며 13시간 10분이 걸린다. 마드리드에서 아빌라, 바야돌리드, 살라망카 등은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 갈 수 있다.

카스티야 이 레온은 마드리드 북서쪽에 있는 내륙 고원지대다. 여행은 한여름을 피해 하는 것이 좋다. 7~8월에는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서기도 한다. 여행에 가장 좋은 시기는 5~6월, 9~10월이다. 여름엔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선글라스를 착용하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거나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얇은 점퍼 하나쯤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

호텔



파라도르 데 아빌라

스페인어로 '휴식처'란 뜻의 파라도르는 스페인 각 도시의 고성, 궁전, 저택, 수도원, 요새, 시청사 등을 고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호텔체인이다. 스페인 전역에 파라도르 100여 개가 있으며 현대적으로 개선했고 건축물의 특징과 소품을 살려 투숙객들에게 스페인의 역사적인 유적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즐거운 경험을 안겨준다. 성벽과 붙어 있는 아빌라의 4성급 파라도르 호텔도 16세기 건축물인 피에드라 알바스 궁전을 개조했다. www.parador.es

카스티야 테르말 모나스테리오 데 발부에나

바야돌리드 마요르 광장을 기점으로 동쪽 약 46km, 자동차로 43분 거리에 있으며 잘 보존된 12세기 시토파 수도원을 고친 유적지다. 중세 건축의 고풍스러움, 도심 외곽의 고즈넉함과 함께 온천의 따스함을 만끽할 수 있다. 객실 79개와 다양한 요리가 제공되는 식당,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홀 등을 갖춘 5성급 호텔이다. www.castillatermal.com

가 볼 만한 곳



살라망카

1218년 스페인 최초의 대학이 설립된 곳이다. 활기찬 젊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구시가 중앙의 마요르(Mayor) 광장과 유서 깊은 살라망카 대학이 있다. 대학 동남쪽에는 대성당 두개가 맞붙어 있는데 12세기에 지어진 비에하(Vieja·'오래된'이란 뜻) 대성당과 18세기에 완공된 누에바(Nueva·'새로운'이란 뜻) 대성당이다. 비에하 대성당은 바깥에 출입구가 없고 누에바 대성당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다. 수많은 조개껍데기 모양 부조가 건물을 장식한 독특한 외관의 '조개껍데기 저택'(Casa de las Conchas)도 놓쳐서는 안 된다. 15~16세기에 지어져 살라망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물로, 조개껍데기 장식은 건축주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또는 자신이 소속된 수도회를 나타내려고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바야돌리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과 연관이 많은 중세도시이다. 1571년 무적함대를 이끌고 레판토 해전에서 오토만 제국을 물리쳐 유럽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펠리페 2세가 근거지로 삼았고 카스티야 왕국의 왕위 계승자 이사벨라 1세와 아라곤의 왕위 계승자 페르난도 2세가 결혼식을 거행해 전 유럽의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 대문호 세르반테스가 만년을 보내고, 탐험가 콜럼버스가 숨을 거둔 도시다. 16세기에 건축된 바야돌리드 대성당이 있으며 인근에는 우아한 로마네스크 양식 탑이 있는 산타 마리아 라 안티구아 교회, 대학 건물 등이 있다. 그밖에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항해 경로가 담긴 고지도, 당시 바야돌리드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전시된 콜럼버스 박물관과 아담한 정원이 있는 세르반테스의 집이 있다.

카스티야 이 레온의 음식

카스티야 이 레온 지방에는 고원지대의 기후 때문에 생겨난 독특한 음식이 많다. 세풀베다와 부르고스 사이 지역에서는 겨울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어린 양고기구이를, 세고비아에서는 새끼돼지 구이를 즐긴다. 아빌라는 티본 스테이크와 하얀 콩 요리로, 살라망카는 햄으로 유명하다.



부르고스
메종 델 시드 식당의
어린 양고기 구이
'레차조'(Lechazo).



일명 '백악관의
오바마'(Obama in the
Whitehouse)로 불리는
바야돌리드 로스
시갈레스 식당의 수프.



아빌라
메종 델 라스트로
식당의 티본 스테이크
'쉴레톤'
(Chuletón de Ávila).